

제2회 동북아 미래 국제 포럼, 협력과 평화를 주제로 심도 있게 논의

[동북아신문=한승헌 기자] 동북아 정치, 경제, 역사를 주제로 한 동북아 미래 국제 포럼이 지난 16일, 일본 가나자와시에서 열렸다. 동북아 미래구상연구소(INAF) 주최로 진행된 이번 포럼에는 약 40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해 일중 관계와 국제 정세를 논의했다.

개회식에서는 히라코카와 히토시 INAF 이사장이 개회인사를 올리고 INAF 고문 쿠와바라 유타카 원 일본중의원의원과 이와모토 소우타 원 일본 참의원의원이 축사를 올렸다.



왼쪽, 리강철 INAF 소장

행사에서는 INAF 와 몽골의 동북아안보전략연구소(MINASS)가 협약(MOU)을 체결하며 지역 평화와 공동체 형성을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

기조연설에서는 김영호(金 泳鎬)·INAF 최고고문 전 한국 산업자원부 장관이 동북아의 신냉전 상황과 협력 과제를 제시했으며, 와세다대 류걸(劉傑) 교수는 일중 관계 재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식 공동체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제 2 부에서는 <일중 관계 150 년 프로젝트>를 주제로 역대 중국 지도자들의 대일 인식과 대일관계의 변화에 대하여 분석했다. 리강철(INAF 소장)은 마오쩌둥의 대일인식과 대일 관계를 논의했으며, 토론자로는 린취안중(林泉忠) 도쿄대 연구원이 참여했다. 또한 유민호(俞敏浩)INAF 이사) 나고야대학 교수는 덩샤오핑의 대일 인식을 주제로 발표했고, 토론에는 게이오대학 단루이충(段瑞聰)교수가 담당했다. 이어 리하오(李昊) 도쿄대 교수는 시진핑의 대일인식과 일중관계를 조망하고 중앙대학의 후카마치 히데오교수가 논의를 마무리했다. 마지막으로 와세다대학 박사과정의 왕페이루(王培璐)는 문혁시 중국에 파견된 일본 기자의 사례연구에 관하여 발표하고 마츠모토 리카코(松本理可子) 중국연구소 연구원이 토론을 했다.



아래는 제 2 부 토론자 구체 명단이다.

N. 도루지스렌· MINASS 이사 (몽골)

안도레 베로후· INAF 이사· 후쿠이켄리쯔 대학교

Sh. 엔크바야르· INAF 부이사장· 니가타켄리쯔 대학교

츠츠미 카즈나오· INAF 이사· 경희대학교 일본연구소 수석연구원

야지마 히로키· INAF 이사 겸 전 NHK 월드 뉴스 부국장

나카토 히로히코· INAF 이사· J & Resource Japan Co., Ltd. 대표이사

박향화· INAF 연구원· 사무국장 중부조선족연합회 사무국장

김성덕· 주식회사 DigiFocus 대표

허수동·INAF 이사·하이난성 쑤야 가쿠인 대학교 교수(온라인)

김 설·오사카 경제법과대학 아시아연구소 연구원

한승헌·INAF 연구원·서울대학교 대학원 (온라인)

제 3 부에서는 세계 다극화와 동아시아 국제질서를 논의하며, 한반도 평화와 국제 협력, 동남아의 BRICS 접근 등이 주요 발표 주제로 다뤄졌다. 주요 발표자로는 미무라 미쓰히로(INAF 상임이사) 니이가타현립대학교수와 이시카와 고이치 전 아시아대학 교수가 발제하고 동북아각국 전문가들이 토론에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제 4 부에서는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초국적 역할을 주제로 조선족 커뮤니티의 글로벌 사회 기여를 조명했다. 김광림 교수(신니가타산업대)가 기조발표를 맡았으며, 조선족 여러 전문가들이 조선족 커뮤니티가 글로벌 사회에 기여할 방안을 논의했다.

본 포럼은 동북아 협력의 과제와 비전을 공유하며 폐회되었다.

한편, 이 포럼 제 1 회는 2023 년 8 월 22 일에 서울에서 개최하였고, 제 3 회는 내년 9 월 13-14 일에 몽골의 우란바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앞으로 동북아 각국에서 윤번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